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이번엔 챔피언 우승이다”

핸드볼코리아리그 PO 대비 훈련
준PO 승자와 내달 3일 대결
창단 첫 챔프 위해 맞춤형 전략
강경민 “의미있는 결과 만들겠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챔프 결정전 우승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팀은 20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플레이 오프에 대비해 훈련을 시작했다.

리그 2위에 오른 광주도시공사는 3위 SK슈가글 라이더즈, 4위 부산시시설공단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플레이 오프를 치른다. 다음달 1일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 플레이 오프 상대가 확정된다. 3일 치러질 플레이 오프에서 상대를 꺾으면 리그 1위 삼척시청과 챔피언전을 치른다. 삼척마저 제압하면 팀 창단 이래 첫 챔프에 오른다.

강경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이날 오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단련하고 오후에는 코트에서 공수 포메이션 훈련을 시작했다.

훈련은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에 중점을 맞추고 진행됐다. 페이스와 체력이 시즌을 소화하면서 소진됐기 때문이다.

아직 플레이 오프 상대가 정해지지 않은 탓에 수비 보강훈련도 진행했다. 리그 경기에서 번번이 단독 득점찬스를 내줬던 수비시스템 보강과 패스 플레이 등에서 나온 실수를 줄이기 위한 팀 플레이 등을 점검했다.

오 감독은 “훈련량을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전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수비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집중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도시공사는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다.

리그 득점왕 강경민이 견재한 것도 큰 힘이다. 강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20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플레이 오프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경민은 득점1위(192), 어시스트 2위(109개) 등 공격포인트(어시스트+득점) 1위를 기록한 득점 골잡이다.

강경민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리그 2위를 지켜냈다. 선수들끼리 포스트 시즌을 최대한 즐기면서 후회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며 “포스트 시즌 큰 경기에서 후배들과 경험을 쌓고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울시전 골문을 든든하게 지킨 박조은도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방어율 1위(41.5%), 세이브 2위(288개)에 랭크되는 등 맹활약했다.

박조은은 “약착같이 플레이하겠다. 포스트 시즌에는 리그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겠다”고 다짐했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들이 포스트 시즌을 버리고 있지만 전력 누수는 가장 큰 부담이다.

주전 원선필과 서아루가 무릎 부상으로 뛰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즌 1위를 달리던 도시공사가 2위로 내려앉은데는 이들의 부상 악재가 작용했다.

결국, 김지혜와 김금순 등이 포스트 시즌에서 이들의 공백을 어느 정도까지 메우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세일 감독은 “주전들의 부상에도 선수층이 넓

어 힘들게 시즌을 치렀다. 포스트 시즌이 단기전이기에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우되는만큼 최대한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레이 오프 상대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UCL 4강전, ‘맨시티 vs 레알’ ‘밀란 더비’

황금 대진표 ... 최고 흥행 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두 시즌 연속으로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문턱에서 맞붙는다.

맨시티는 20일 열린 2022-2023 UCL 8강 2차전에서 후반 12분 터진 엘링 홀란의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1-1로 비겼다.

그러나 1차전에서 3-0 대승을 거둔 맨시티는 1-2차전 합계 4-1로 앞서며 3시즌 연속으로 대회 4강에 진출했다.

맨시티의 준결승 상대는 첼시(잉글랜드)를 합계 4-0으로 완파하고 올라온 레알 마드리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대표하는 두 거함이 정면충돌한다.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는 그간 UCL에서 여러 차례 맞붙었다. 대회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3승 2무 3패로 팽팽하지만, 토너먼트에서 이뤄진 세 차례 대결 중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두 차례 다음 단계로 진출하며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토너먼트에서의 맨시티전 승리는 레알 마드리드에 UCL 우승의 ‘보중수표’나 마찬가지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2015-2016시즌과 2021-2022시즌 대회 준결승에서 맨시티를 물리쳤는데,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직전 2021-2022시즌 맞대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1차전에서 3-4로 졌지만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는 연장전 끝에 3-1로 이겨 합계 6-5로 승리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다.

레알 마드리드가 2년 연속으로 맨시티를 제압하고 통산 15번째 UCL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될지, 아니면 맨시티가 ‘전적’ 레알 마드리드를 물리치고 사상 첫 UCL 우승에 성급 다가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홀란이 대회 12호 골을 터뜨리며 4강행을 자축했다.

홀란은 대회 득점 랭킹 선두 자리를 더욱 굳혔다.



“홀란스럽게”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엘링 홀란이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을 상대로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이미 탈락한 2위 무함마드 살라흐(8골·리버풀)와 격차를 4골로 벌렸다.

‘도움 기계’ 더브라위너는 올 시즌 공식전 23호 도움을 기록, 개인 최다 기록이던 2019-2020시즌의 22개를 넘어섰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밀라노 더비’가 성사됐다.

인터밀란(이탈리아)이 벵카(포르투갈)와 8강 2차전 홈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를 기록, 1·2차전 합계 5-3으로 앞서며 4강에 올랐다.

인터밀란은 앞서 나폴리를 제압하고 올라온

AC밀란(이상 이탈리아)과 산시모에서 더비를 펼치게 됐다.

인터밀란은 2009-2010시즌 이후 13년 만에 UCL 4강 무대를 밟는다.

전반전을 1-1로 마친 인터밀란은 후반 20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33분 호아킨 코레아의 연속골로 앞서나가 준결승행을 예감케 했다.

벵카는 후반 41분 안토니오 시우바, 후반 추가시간 페타르 무사의 골로 2차전 무승부를 기록하는 데에 그쳤을 뿐, 1차전 2점 차 패배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우즈 또 발목 수술 ... 남은 메이저 대회 참가 불투명

타이거 우즈(사진)가 또 수술대에 올랐다.

우즈는 2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즈는 2021년 2월 교통사고 때 부러졌던 오른쪽 발목 복사뼈의 외상 후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술은 뉴욕 병원에서 받았지만, 우즈는 곧바로 플로리다주 주피터 자택으로 돌아와 재활을 시작했다.

2021년 당시 사고로 우즈는 오른쪽 다리와 발목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다. 다리를 잘라낸 뻔했던 그는 지난해 기적같이 재기에 마스터스에 출전, 큰 감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다시 출전한 마스터스에서는 눈에 띄게 다리를 절었고, 3라운드 경기 도중 기권해 부상 부위가 도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샀다.

우즈의 에이전트인 엘렉 스포츠 마크 스타인버



그 대표는 “우즈는 수술받은 뒤 쉬고 있으며 나아지고 있다”고 AP와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스타인버는 언제 우즈가 코스에 다시 나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인 (필드 복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 목표는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술은 다 회복하는데 8주에서 12주 가량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5월 PGA 챔피언십과 6월 US오픈에 나서려던 우즈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뜻이다. 7월에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디옌 출전도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메이저 퀸 노리는 고진영 “손목 상태 80% 정도”

세브론 챔피언십 출전

4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노리는 고진영이 손목 상태에 대해 “80% 정도”라고 밝혔다.

고진영은 20일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세브론 챔피언십(총상금 510만 달러)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고진영은 “2019년에 처음 메이저 우승을 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돌아보며 “올해 새로운 코스에서 경기하게 됐는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브론 챔피언십은 지난해까지 줄곧 미국 캘리포니아주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고, 올해 개최 장소를 미국 텍사스주 더 클럽 칼턴우즈로 변경했다.

지난해 하반기 손목 부상으로 고진영은 올해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부활을 알렸다.

그의 메이저 대회 우승은 2019년 이 대회 전신인 ANA 인스피레이션과 같은 해 에비앙 챔피언십 등 두 차례다.

고진영은 손목 상태에 대해 “80% 정도까지 좋아졌다.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경기 스타일의 변화를 소개하며 “그동안 드로 샷을 주로 구사했는데, 최근 다소 페이드 구질로 바꾸면서 그린에서 스핀을 더 많이 받아 버디 기회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4년 만에 메이저 3승째를 노리는 각오를 묻는 말에는 “2019년에는 메이저 대회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스윙 코치도 바꾸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다 보니 특히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시 예전 스윙 코치(이시우)와 함께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물론 메이저 대회는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승할 경우 18년 홀 인그 후에 뛰어올랐다는 질문에 고진영은 “준비됐다. 100%”라고 답했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은 20일 개막하며 고진영은 한국시간 21일 오전 3시 10분 제니퍼 켈츠(미국), 패티 타와타나닛(태국)과 함께 1라운드를 시작한다. /연합뉴스